

[묵상과 영적성숙]

④ 묵상과 영적 성장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훈련을 통해서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는 훈련 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다. 훈련을 특권으로 아는 사람이다.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다.

영성훈련의 뼈대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 가고, 스승이 제시하는 삶의 수준을 영광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영성 훈련이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영성 훈련의 초석을 말씀 묵상에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가 걸어가야 할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영성 훈련의 뼈대를 형성해 준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 8:31).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셋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요 15:8). 이 세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요 1:1~3:14).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요 15:9).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친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게 된다(요 15:2~8).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연결된 삶이요 총체적인 삶이다. 그렇지만 그 출발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영성 훈련의 기초는 말씀 묵상에 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이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최우선 순위를 말씀에 두기 때문이다.

훈련은 긴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요 큐티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묵상임을 아는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기초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생각 훈련하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영성 훈련은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된다. 생각을 훈련할 때 생각이 다스려지고, 말씀 목상을 통해서 그 생각은 마음으로 내려오게 된다. 생각만 가지고는 감정의 변화에 이르기 어렵다. 그 생각만 마음으로 내려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마침내 행동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생각을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으로 영성 훈련은 시작된다. 모든 행동의 근본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노력한다는 것과 훈련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훈련은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훈련에는 반복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 훈련에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요소도 들어 있다. 말씀 목상이 훈련의 원조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목상과 관련된 성경말씀을 보며 주야로 묵상하는 전적인 헌신과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적용(시 1:2,3 수 1:8)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 키가 크다고 다 농구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농수 선수가 되었다고 항상 좋은 점수만 내는 것도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탁월한 선수가 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최상의 영적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묵상이다.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비결은 목상을 통한 영성 훈련에 있다.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